

신한속속 192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7
11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Question 1 - 2017 신한류 패션위크

Question 2 - 공연예술학과 김희진 황금촬영상 영화제 신인상

Question 3 - Virtual Reality와 교육의 만남

- 지역사회와 신한 Wellness Forum
- 동두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 제 45주년 개교기념식
- 신한대학교 행복기숙사 개관식
- 기부 문화를 선도한 전현수 원장

책으로 말해요

동아리 연합공연 BASH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특특'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김병욱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17.11.13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박은형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2 325 3405 • 정가 8,000원

Contents

- 01_US.KOREA.SOL.1010.599.GX
- 02_신한 The 쎬세이션
- 04_Virtual Reality & Shinhan
- 06_2017 신한류 패션위크
- 14_공연예술학과 김희진 신인남우상
- 18_Virtual Reality와 교육의 만남
- 22_Shinhan University Vision
- 24_지역사회와 신한 Wellness Forum
- 28_동두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 30_제 45주년 개교기념식
- 32_신한대학교 행복기숙사 개관식
- 36_신한대 수시모집결과
- 38_기부 문화를 선도한 전현수 원장
- 40_책으로 말해요
- 42_신한국인 Super Star
- 44_신한대 동아리연합회 공연 BASH
- 46_이모저모
- 52_대학발전기금
- 54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18 수시모집 4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1010-599-GX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신한, The 센세이션!

2017 패션위크

VIRTUAL REALITY

SHU student

- 공연예술학과 15학번 공연예술학과 김희진
제 37회 황금촬영상 영화제 신인남우상 수상
- 꾸준한 노력파 신한대학교 공연동아리연합의 공연 <BASH>

Local & SHU

- 지역사회와 신한 Wellness Forum
- 제3회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무지개 밥상’ 개최

Happiness

- 신한대 장학금 기부문화를 선도한 사람들,
1000만원 기부한 전현수 원장

Global University

- 2017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
- 2017 신한류 디자인 콘테스트
- 2017 뉴커머컬렉션

Question

- Column : Virtual Reality와 교육의 만남

Inside

- 신한대학교 제 45주년 개교기념식
- 신한대학교의 보금자리, 행복기숙사 개관식
- 신한대학교 2018년도 수시모집 결과

Culture

- 책이야기1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장 지글러 작
- 책이야기2 <내 사랑 백석> - 김영한 작

VIRTUAL REALITY & Shinhan University



VR : Virtual Reality. 즉, 가상현실을 말한다. 멀고도 닿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지던 가상현실세계는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워져 있었다. 지금은 변화가에서 쉽게 VR체험을 할 수 있는 게임방이나 카페가 있는 시대가 된 것으로도 그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기업에서도 가상현실 기기들을 물밀듯 쏟아낸다. 테마파크에서도 VR을 이용한 놀이기구를 앞 다투어 내놓는다. 우리는 이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가상현실 VR기술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할까?

VR의 출현과 대중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학문이 될 수 있다.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학기술 안에서 우리는 직업의 변화, 문화의 변화 등 다양한 파도를 겪는다.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의 대표인 가상현실세계는 우리에게 한 차례 파도가 된 적이 있으며 지금 우리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5년 국제소비자가전박람회(CES)는 가상현실이 다시 IT 생태계의 한복판에 등장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래 주력 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들려온다. 학문은 바다와 같이 넓고 넓다. 단순히 발전한 기술 또는 IT상품으로만 VR을 수용하는 것보다

사회에 빠르게 침투할 'VR'을 새로운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궁금증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VR을 게임이나 스마트기기, 놀이기구에서 이용하는 흥밋거리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VR은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라는 수식이 붙을 만큼 현실과 닮은 모습을 띄게 되었으며 단순한 흥밋거리를 벗어나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창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과 VR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도 새로운 기술의 파도를 넘기는 우리에게 좋은 자세가 될 것이다.

〈박은영 편집장〉



2017
SHINHANRYU
FASHION
WEEK

신한류 대학으로의 도약 스타 탄생의 요람,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 개최

지난 9월 10일, 강남섬유센터에서 제3회 신한류 슈퍼루키(Super Rookie) 모델 콘테스트가 열렸다. 신한대학교 주최 하에 '스타 탄생의 요람'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패션 위크의 대미를 장식한 이번 콘테스트는 슈퍼루키모델콘테스트 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며 천진공업대학, 신한류 뮤직페스티벌 준비위원회, 신한류 스트릿댄스콘테스트 준비위원회, 공연예술학과 K-POP전공,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뷰티헬스전공에서 후원, 브라보스튜디오, F2MG아카데미가 협찬하였다. 또한 변종모(여행·사진작가), 이현욱(모델), 김장환(Agency garten 대표), 김서룡(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이 심사를 맡았다.

2017
SUPER
ROOKIE
MODEL
CONTEST



2017
MoDEL
CONTEST
SHINHAN UNIVERSITY

2017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콘테스트



이번 콘테스트의 결선무대에는 국내 예선을 거친 20명과 러시아, 중국, 몽골을 비롯한 6개국에서 해외 예선을 통과한 17명 등 모두 37명이 참가하였다. 대상은 결선무대에서 뛰어난 워킹과 연기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박양현과 김어진(이상 한림예고)에게 돌아갔으며 금상은 쉐센베코와 마디나(카자흐스탄), 은상은 이솔(COL엔터테인먼트), 동상은 오시원(한림예고), 올가 이그나텐코(러시아)가 차지하면서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이외에도 울지델겔 우란거(몽골), 조영버 응언 타우(베트남), 주덕신(중국), 홍익호(한림예고), 최가연(한림예고)이 포토제닉 부문, 수호(중국), 담건홍(중국), 송유림(한림예고), 브라디스라브 코알렌코(러시아), 레탄묵 꾸엔(베트남), 강범준(신한대), 김다빈(한림예고)이 인기상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신한대학교 총장상(200만원), 금상은 신한대학교 부총장상(150만원), 은상은 신한류 슈퍼루키모델콘테스트 준비위원장상(100만원), 동상은 협찬 업체 대표상(50만원), 인기상은 신한류 디자인콘테스트준비위원장상(30만원), 포토제닉(20만원), 인기상(10만원)으로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신한대 교수이자 패션디자이너인 김서룡옴 브로셔

모델기회가 부여되며, 잡지화보 촬영 기회가 주어지는 한편 신한대학교 입학 시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신한대학교 김병욱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슈퍼루키모델콘테스트를 해외로 개방한 것은 신한대학교를 국제적인 신한류 대학으로 부각시키고, 국내·외의 잠재력이 큰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스타를 탄생시켜 대학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명호(신한대 학생지원처장) 조직위원장과 예선부터 본선까지 참가자들의 역량을 지켜본 김서룡(신한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는 “매년 참가자들의 기량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신한대학교의 신한류 행사가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신홍대학교와 한북대학교의 통합으로 중합대학으로 출범한 신한대학교는 아시아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의 여러 대학과도 교류의 영역을 넓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세계 속의 문화대학을 추구하는 신한대학교의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제교류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신한대학교의 신한류 대학으로의 도약을 기대해본다.

〈이승은 기자〉



2017 DESIGN CONTEST

패션디자인의 밝은 미래 선보인 신한류 디자인 콘테스트

지난 9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강남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한대학교가 주최한 2017 신한류 디자인 콘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의 공모 주제는 Free Style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학생부에는 고등학생, 일반부에는 대학생에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날 콘테스트의 수상자로는, 최윤정 학생이 100만원의 상금과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금상에는 일반부와 학생부 각각 한명씩 이다빈, 박은미 학생이 공동으로 수상했으며 50만원의 상금을 차지했다, 20만원의 상금이 달린 은상 또한 공동으로 이윤근 학생과 강다빈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특선에 5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으며 1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디자인 콘테스트의 심사위원은 패션디자인전공 김서룡 교수 외 3명의 교수가 맡았으며 심사의 기준은 국내외의 미발표 된 창의적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컨셉과 종합적 디자인 표현력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7 SHINHANRYU FASHION WEEK



심사의 기준만큼이나 이 날 행사에서 수상을 한 작품들은 모두 참가자들 본연의 개성이 뚜렷하게 전해졌으며 전시회를 감상한 사람들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만큼 훌륭한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신한대학교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발전가능성이 넘치는 우수한 디자인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해외 참가자와 해외 대학의 교류로서 국제 수준의 신한류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처음 개최한 이번 콘테스트는 첫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으며 동시에 다음에도 진행될 제 2회 신한류 디자인 콘테스트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해낸 신한류 디자인 콘테스트는 신한류 디자인 콘테스트 준비위원회가 주관하고, 천진공대, 신한류 뮤직페스티벌,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그리고 신한류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 준비위원회,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전공에서 후원했다.

〈김수정 기자〉

2017 SHINHANRYU FASHION WEEK

뉴커머컬렉션 4년간의 노력을 한 곳에 담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강남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9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2017 신한류 패션위크의 뉴커머컬렉션이라는 타이틀로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과의 졸업작품전이 개최되었다. 이 날 진행된 졸업작품전에서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몇 개월에 걸쳐 옷을 직접 제작하고 쇼를 계획하는 등 지난 날 학생들의 노력을 하나하나 엿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신한대학교 김병옥 총장을 비롯한 유보선 부총장과 신한대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패션디자인과 김서룡 교수와 신유지 교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수많은 학생들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함께해 그동안 학생들이 빚어낸 결과물들을 함께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졸업작품전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해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행사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전문 가 못지않은 실력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꽉 채웠다. 마지막 순서로는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이 모두 무대로 나와 서로 지난 4년 동안의 시간들을 자축하기도 했다.



졸업작품전 행사에 참석한 신한대학교 유보선 부총장은 “그동안 노력해온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며 졸업작품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여기에 와주신 많은 분들이 우리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속의 열정들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학생들이 수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든 작품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또 유 부총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수많은 날들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 주었다. 함께 참석한 김서룡 교수와 신유지 교수 또한 ‘4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이곳에 담은 만큼 작품들 하나하나 모두 기대된다.’라며 작품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자신들이 4년 동안 지도해 온 학생들에게 수고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 날 행사는 긴 시간 동안 졸업작품전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고 더불어 행사에 참석한 이들 모두가 학생들에게 큰 기대의 목소리도 보내주기도 했다. 신한대학교 패션디자인과 학생들 모두가 졸업작품전 행사를 준비하기까지의 수많은 역경과 노력들을 잊지 않길 바라며 신한인으로서의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수정 기자〉





〈영화 '인천상륙작전' 류장춘 역〉



영화계의 새로운 기대주

배우 김희진이 '제 37회 황금촬영상 영화제'에서 신인남우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개최된 '제 53회 대중상 영화제'의 뉴라이징상에 이은 두번째 신인상이다.

‘제 53회 대중상 영화제’ 뉴라이징상
‘제 37회 황금촬영상 영화제’ 신인남우상!!

공연예술학과 김희진 15학번

지난 8월 열린 ‘황금촬영상 영화제’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의 주최 하에 이뤄진 영화제로 1977년부터 올해까지 총 37회에 걸쳐 진행된 뿌리 깊은 영화제이다. ‘황금촬영상 영화제’는 영화제와 콘서트가 결합된 영화축제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원들에 의해 한 해 동안 촬영된 영화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는 실제 촬영을 함께했던 현장의 스태프들의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배우 김희진은 지난해 7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 인천방어사령관 림계진(이범수 분)의 주변인물로 북한군의 주요 군사전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장교 역할인 ‘류장춘’역을 맡아 몰입도 넘치는 연기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으로 재학 중인 그는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영화계에서 주목하는 라이징 스타로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주최 하에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 53회 대중상 영화제’에서도 ‘뉴라이징상’을 받아 떠오르는 기대주임을 증명했었다. 1962년도부터 이어져 온 ‘대중상 영화제’는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은 영화제로 한국의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내의 대표적인 영화제이다. ‘대중상 영화제’는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인들의 투표에 의해 선정되며 특히 김희진이 수상한 ‘뉴라이징상’은 새로 신설되어 남녀불문하고 영화계에서 이목을 모은 신인배우에게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색깔의 연기를 보여준 김희진은 관객들뿐만 아니라 촬영현장에서 함께 했던 스태프들과 영화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인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배우이다. 오늘은 영화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예배우 김희진을 만나보았다.

Q&A

KIM HEE-JIN



Q. 지난해 열렸던 대중상영화제와 올해 열린 황금촬영상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셨어요. 스크린에 데뷔한 후 처음 받는 상이라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신인상’이라는게 배우로서 딱 한번 받을 수 있는 상이라 어떤 상보다 꼭 받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이 시기가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상이잖아요. 영화가 끝나고 다른 작품을 준비하면서 회사 식구들이랑 받고 싶다고 말로만 했었는데 받게 되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좋게 봐주시고 이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Q.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 북한군 ‘류장춘’역으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하셨는데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할이나 캐릭터가 있나요?

정말 뼈 속까지 악역인 역할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인천상륙작전에서 말

았던 ‘류장춘’역도 악역이라면 악역이었지만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면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최민식 선배님이 맡으셨던 살인마 같은 역할이요. 정말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과 첫 번째 졸업 작품에서 폭군 역할을 맡아서 연습 중이에요. 연산군에 관한 작품인데 꼭 해보고 싶던 캐릭터를 맡게 돼서 즐겁게 준비 중이에요.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경험을 다져서 좋은 영화에서 또 다른 매력의 악역을 알아보고 싶어요.

Q. 맡으신 역할마다 특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캐릭터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나요?

제가 맡았던 역할들 모두 좋은 기회였던 터라 하나도 빠짐없이 애착이 가요. 하지만 꼭 하나만 뽑으려면 데 뷔할 때 맡았던 역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이리스2에 ‘임기준’이라는 단역이었는데 대사도 많지 않았고, 매니저도 없어서 혼자 다니면서 촬영했어요. 그때도 북한군 특수요원 역할이었는데 동대문에 직접 가서 사비로 의상이나 이어셋도 준비했어요. 처음 맡은 역할이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행히도 감독님께서 소품팀에서 준비한 소품들보다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분량도 2회였는데 4회로 늘어났었어요. 작은 역할이었지만 TV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신기했었죠.

Q. 신한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기 전에 오랜 시간 마술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연기에 뛰어들 수 있었던 계기가 이유가 있었나요?

마술을 할 당시에 주위에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 반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연기하는 걸 지켜보다보니 마술과 연기에 대한 차이점이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연기로 주는 감동들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생기기도 했구요. 결국 군대에서 전역하기 전에 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전역 후에 뭐가 되든 부딪혀보자 마음먹고 여러 학교를 알아보다가 지금의 학교에 편입해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해 4월 저희 과 학과장이신 이범수 교수님의 추천으로 아이리스2에 들어가게 됐죠.

Q.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하여 여러 작품에서 대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춰보셨잖아요. 연기를 하면서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신가요?

박찬우 선배님, 김선아 선배님 등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 모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촬영하면서 틈틈이 조언도 해주시고 제가 한참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로서 존중 해주셨죠. 물론 이범수 교수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범수 교수님께서 제 첫 연기사승님이시자 롤모델이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아이리스2에도 교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현장에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나 유리할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사실 제가 지금의 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도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현장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때문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는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매체로 나가기에 최적화 된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Q. 현장에서 뛰면서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많이 어렵죠. 하지만 스케줄 있을 때도 학교에 들려 출석을 하고 가는 편이에요. 외부에서 활동한다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하는 작품들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외부 스케줄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학교에 오면 저는 연기를 배우는 학생이니까 당연한 거죠.

Q.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연기를 길게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들을 보면 제 이미지와도 다르고 캐릭터마다 달라서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점을 살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역할도 알아보고 싶고요. 교육자에 대한 꿈도 있어요. 뻔한 말이지만 저는 열정만 있으면 뭐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정을 가지고 하다보면 누군가는 노력을 알아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범수 교수님이 알아봐주셔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을 알아봐주고 용기를 주고 싶어요. 제가 받았던 기회들을 간절한 친구들에게 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일단 교수님처럼 좋은 배우이자 영향력 있는 배우가 돼야겠죠. 연기를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배워야하겠죠. 먼 훗날의 꿈이에요!

사진협조 - 공연예술학과
〈김민지 기자〉

VIRTUAL REALITY와 교육의 만남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말 그대로 「실체가 아니지만 실제와 유사한 인공적 환경」을 의미한다. 넓게는 기존에 존재하던 갖가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혹은 '스타크래프트' 나 '오버워치' 같은 각종 비디오게임 등 역시 가상현실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시각, 청각만을 충족시키던 수준을 탈피하여 사용자의 오감을 충족시켜 실제에 근접한 공간 및 시간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즉, 특수한 장비와 그래픽 기술을 통해 현실이 아닌 환경을 마치 현실과 흡사하게 만들어 내는 기술, 말 그대로 '가상 현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본디 오늘날 '가상현실'이라고 불리는 기술, 즉 가상적인 세상을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모의현실(Simulated Reality)」이라고 하는데, 표현이나 목적에 따라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드는 일반적인 가상현실과는 달리 모의현실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정도의 시뮬레이션은 현재도 가능하다. 생각 외로, 가상현실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



실제로 가상현실 구현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은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다. 가상현실 구현에는 3차원 공간성, 실시간 상호작용, 몰입성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3차원 공간성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가상공간 구축 기술을 통해 하며, 실시간 상호작용은 발달된 네트워크 통신기술로서 해결 할 수있다. 그리고 몰입감은 HMD(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직접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출력장치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용어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현실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기술들이다.

하지만 모의현실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충분히 실용화 가능한 기술들이고 일부는 실용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모의현실에 가까운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한 장비를 개인이 구축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대중에게 아직 VR이란 특별한 체험시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술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내 기술이 완성되고, VR 기술 구축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의 가격이 내려가면, VR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여러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가상현실과 자주 혼동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다. 현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상현실이라면, 현실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이다.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올해 초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인 '포켓몬스터 Go'가 바로 이 증강현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가상현실이 말 그대로 '가상 현실'이라면, 증강현실은 절반만 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자동차 공학에 적용된 증강현실

‘현실을 대체한 가상적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상 현실의 특성은 교육 분야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의료 분야인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3차원 해부도 실습, 시뮬레이션, 가상 내시경 실습, 모의수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인체의 모든 부분을 VR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경우, 해부와 같이 여건상 자주 할 수 없는 교육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인체 내부를 가상적으로 탐험하면서 해당 부위를 살펴보고 실습하는 등 일반적인 과학 교육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학, 기술 분야에서도 VR에 걸리는 기대는 크다. VR 기술은 자동차, 비행기 등의 조종을 시뮬레이션으로 실습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구조 실습,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능력 교육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교육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게임분야에 적용된 VR 기술

비단 교육 분야에서만 VR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기업체들은 이미 프로토타입 제작 및 시험에 VR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이를 통해 모든 시험 기간을 줄이고, 제작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갖가지 환경조건에 따른 테스트 역시 가상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어, 위험은 줄이고 효과는 늘린 시험이 가능해진다. 또, 네트워크를 통해 먼 곳에 있는 공동 작업자와 똑같은 모델을 보며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현재 VR 기술을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분야는 바로 게임, 공연 및 전시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일 것이다. 특히 게임 분야는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VR 기술을 통해 게임 세계에서의 사실감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게임의 품질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VR 기술은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운동선수의 훈련에 쓰임은 물론, 스포츠를 보다 흥미롭게 관람하는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VR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듯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콘텐츠는 기존의 다른 콘텐츠에 비해 현실감과 몰입감이 뛰어나며, 이는 학습 성취도의 극적인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VR

VR 기술을 적극적으로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모든 교육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 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VR 기술을 교육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갖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전공분야의 교육에 있어 VR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앞선 교육 현실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공학과 장형성 교수〉



Shinhan University Vision

신한대학교 인재상

-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 양성
- 사랑과 봉사의 사명인
- 지성과 창의의 실용인
- 소통과 공감의 세계인
- 도전과 발전의 학습인

Start New-versity

- S _ 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 T _ 재능(Talent)을 함양하는 New-versity
- A _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 R _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 T _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신한대학교의 4S 파워

- **Spirit** : 기독교 정신의 섬김을 통한 영성교육
- **Service** :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나눔교육
- **Synergy** : 통합과 융합의 새로운 창조교육
- **Specialization** : 특성화와 차별화된 전문교육

Talent Identity

New Start

4S Power

신한대, 경기북부 웰니스(Wellness) 융합포럼 개최

지난 6일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에서 경기북부 웰니스(Wellness) 융합포럼이 열렸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치매인구 100만 명 시대도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30년 100만 명을 넘어서고 250년에는 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치매의 심각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신한대학교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웰니스(Wellness) 융합포럼을 발족하고 창립세미나의 주제를 '치매특화방안'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날 열린 세미나에서 김영성 신한대 바이오테크 R&D사업단장(식품영양전공 교수)와 양승희 신한대 치매 R&D사업단장(간호대학 학장)이 '경기북부 왜 웰니스 산업의 최적지인가'와 '경기북부 치매관리사업의 특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경기북부, 왜 웰니스 산업의 최적지인가

김영성 신한대 바이오테크 R&D사업단장 (식품영양전공 교수)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이다.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은 웰빙과 힐링에 이어 웰에이징(well-aging)으로 진화했으며, 단순히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자는 의미로 이제 웰빙을 넘어 웰니스가 국내·외 의료·외식·관광·패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북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위한 웰니스의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국내 최대 시장인 수도권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DMZ를 포함한 높은 청정 이미지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건강과 힐링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축제 및 체험 그리고 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파주, 포천)에서는 건강과 힐링을 고려한 웰니스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화작물(울무, 공, 유색미, 부추, 공, 화훼 등)과 약용약초(버섯, 인삼 등)를 이용한 뷰티나 웰빙 푸드 등 웰니스 바이오 신상품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도 웰니스 산업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경원축을 중

심으로 한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운데 의정부시의 경우 10개 구간의 소풍길 코스를 이용한 걷기 테마와 함께 유명한 떡갈비 등을 프랜차이즈 메뉴로 개발함으로써 웰니스 브랜드로서 의정부시의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양주는 고려 3대 사찰 중 하나인 회암사지, 권율 장군묘, 화암서원 등 유적지와 별산대놀이, 백화암을 활용한 문화기행 프로그램과 부추, 밤 등의 특산물을 이용한 모던한식 메뉴 개발을 통해 웰니스 브랜드로서의 도약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포천시는 물과 허브를 이용한 허브아일랜드와 힐링 센터를 주축으로 물과 아로마테라피를 주제로 한 힐링 도시를 운영하고, 동두천시는 소요산, 소금강과 같은 지리적 여건과 유적지를 중심으로 걷기와 바이크를 테마로 한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천군에 위치한 한탄강의 주상절리는 음이온 테마 신한 R&D도시로서 건강과 행복 그리고 웰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곱혀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웰니스 관광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북부의 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웰빙 식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자연·환경·문화 자원을 연계한 건강한 삶과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북부 치매관리사업의 특성화 방안

양승희 신한대 치매 R&D사업단장(간호대학 학장)

2017년 2월 현재 경기도 내 치매 환자는 13만7,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 관리 및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북부 지역의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아 이 지역의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이 가장 시급한 현실이다. 따라서 신한대학교는 경기북부지역의 허브로서 간호대학이 주축이 되어 이러한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에 앞장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매관리사업의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한대학교는 2017년 5월 경기북부 동두천·연천 지역에서 최초로 치매극복선도대학으로 지정받았고 경기광역치매센터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보건소, 노인복지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치매인식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2017년 7월 신한대학교 치매 R&D 사업단을 구성하여 치매관리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특화사업 및 연구개발, 산·관·학 협력 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치매문제 해결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의로 복지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신한대학교의 치매관리사업의 특성화방안은 경기북부지역(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의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대상자의 세대 간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밀착형 치매관리모델이다. 즉 경기북부 지역은 다른 도시지역과 달리 연천지역 등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치매지원센터를 통해 치매관리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대상자들이 많아 실제적으로 치매지원센터 외에도 방문하여 돌보는 방문형 치매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안에

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즉 마을별로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지역친화형 치매안심마당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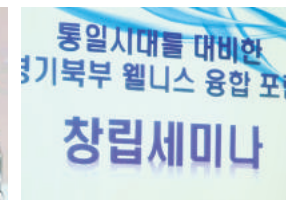
이러한 지역사회밀착형, 지역친화형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환경 개선, 지역사회 치매관련자 교육, 치매대상자 및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다학제적인 접근과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우수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신한대학교는 경기북부, 의정부와 동두천에 2개의 캠퍼스가 위치하며 간호, 보건계열, 사회복지, 뷰티헬스, 식품영양, 공연예술, IT 공학과 등의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며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역량을 보유하여 경기북부 지역특성에 맞는 치매관리특화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치매관리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능을 갖추었다고 본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위탁운영 중인 다양한 센터(의정부 다문화센터, 의정부미디어 센터, 시니어창업기술센터,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의정부시건강가족지원센터, 동두천시건강가족지원센터)와 치매관리 사업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신한대학교 학생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세대 간 사회적 통합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요양원, 복지원, 연수원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치매예방 및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신한대학교 김병욱 총장은 이날 웰니스 융합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웰니스(Wellness)”는 어느 세대 못지않게 중요하고, 특히 치매인구의 증가추세를 보고 있으면 노년의 삶과 행복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치매인구는 곧 100만 명을 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어 가고 있다. 대안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웰니스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웰니스 문제는 비록 시작이지만 나중에는 신한대학교가 그 중심에 서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오소영 기자〉





제3회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그림·사진 공모전 ‘무지개 밥상’ 개최

제3회 어린이 식생활 박람회와 영양의 날을 기념하여 동두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건강한 삶 유지를 널리 알리고, 가정과 어린이 보육기관에 센터를 홍보하고자 제3회 그림·사진 공모전 ‘무지개 밥상’을 개최하였다.

지난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공모전 접수를 받았으며 제1회 ‘편식을 이기는 세계음식’, 제2회 ‘건강한 우리 집 식탁’에 이어 이번 제3회는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주제로 하여 만 3~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 부분에는 648여 점, 만 1~2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진 부분에서는 63여 점이 출품되었다.

아동의 자력여부, 독창성, 표현력, 적합성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동두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김지명 센터장, 신한대학교 디자인 학부 이선민 교수, 어린이집 연합회 김해진 부회장이 출품작들의 심사를 맡게 되었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들은 그림 부분 신한대학교 총장상 3명, 우수상 17명, 사진 부분 우수상 10명으로 총 751명의 참가자들 중 30명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 동두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동두천시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신한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전문기관이다. 2013년 10월에 처음 개소하여 현재까지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보육센터의 영양·위생·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리실 순회방문지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체험관 운영(키즈식생활아카데미, 쿠킹스튜디오, 아롱별클린하우스),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 등이 있다. 이번 공모전 참여 대상인 어린이들에게는 체험과 놀이가 있는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식습관의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영양교육 행사는 요즘 유행하는 저염·저당 교육에 맞춘 ‘심심하고 당당하게 먹어요.’와 영양소 바로 알고 골고루 먹기를 강조하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식생활 박람회가 진행되는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 까지 3일 동안 동두천 시민회관에 이번 공모전 수상작이 액자로 제작되어 전시되며, 10월 28일에는 액자와 상패를 전달하는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동두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김지명 센터장(신한대학교 식품조리과학부 식품영양전공 교수)은 “이번 공모전이 어린이들에게 채소에 대한 반감을 없애고 친밀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신한대학교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치현 수습기자〉





지난 10월 11일 의정부 캠퍼스에서 제 45주년 개교기념식 및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욱 총장, 이채락 신흥학원 이사장, 이석재 동문회장 등 학교 관계자는 물론이고 김동근 경기도 행정제2부지사,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등 외빈도 다수 참여하여 내외귀빈 및 교우, 교직원, 학생 등 총 6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어온 45년, 이어갈 45년

45 years later, 45 years later

신한대 개교 45주년 기념식 개최
학교 관계자는 물론 다양한 외부 귀인들의 축하 쇄도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오전 10시 30분 기념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시작된 1부에선 뒤이어 신한대학교 교목실 김원용 목사의 기도과 안홍교회 김원용 담임목사의 설교를 진행한 뒤 장기근속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의 대상이 된 사람은 총 47명으로, 30년 근속자로 이상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외 2명, 20년 근속자로 이선민 공간디자인전공 교수 외 12명, 10년 근속자로 존 게리 국제여학과 조교수 외 20명이 바로 그 공로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에게는 김병욱 총장이 직접 감사의 인사와 표창장을 건네주었다.

1부 후반에는 김병욱 총장과 김동근 경기도 행정제2부지사의 축하 및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 상영이 있었으며, 뒤이어 가야금 연주와 태권도 시범으로 구성된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교직원 및 교원들로 구성된 '로고스 봉사단'은 찬양을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부 행사에선 바쁜 일정 중에도 신한대학교의 개교기념식에 참석해 준 여러 귀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신흥학원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 점화 및 꽃다발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엔 89회 생일을 맞은 강신경 목사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기독교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 북부에 여러 학교와 요양원, 보육원 등을 설립하였으며, 특히 한북대학과 신흥대학을 합병하여 4년제 대학으로 승급, 경기 북부의 교육 허브이자 현장중심 기술인력의 요람인 신한대학교로 발전시켰다.

김병욱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울해는 신한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완성되는 연도로, 도약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기념식보다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간 현장중심의 인력을 육성한다는 교육전통을 지키며 종합대학에 걸맞는 새로운 학풍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입시에서 4년 연속 경기북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의 결

과를 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한 융·복합교육을 통해 새로운 대학의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New-Versity'의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삼아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기 북부의 교육허브에서 동북아의 허브로 그 위상을 확립했다"고 밝히며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일군 '신한 정신'을 바탕으로 제 2의 도약을 이루자"고 다짐했다.

〈박현규 기자〉



제1캠퍼스 학생보금자리 '카르멜1' 문열다!

행복(공공)기숙사 개관식100실 규모 200여 명 입주

한국사학진흥재단·국토교통부 공공기금 지원으로 신축

국내 최고수준...생활편의·교육의 질 한층 “업그레이드”



Carmel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신축 기숙사가 9월 21일 문을 열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행복(공공)기숙사는 총 65억 원을 들여 의정부캠퍼스 언약의 교회 앞 부지에 지상5층 100실, 196명 수용 규모이다.

각 실은 2인 1실로 시공되어 4인 1실이었던 기존 기숙사보다 쾌적한 환경을 보장했다. 또한 체력 단련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열람실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관련시설과 층별 남녀 학생휴게실 등 여타 현존 기숙사들에 비해 가히 최고 수준이라 할만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었다. 운영은 신한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가 담당한다.

신한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은 현재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7% 수준으로 매우 낮아 지방출신 대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외 원룸에 거주하는 등 거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점을 고려했다. 기숙사비는 2인 1실 기준 월 24만 원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원거리 거주자 및 저학년 학생들이 입주했다.

신축 기숙사 개관식에는 김혜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겸 신한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 김규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신한대학에서는 김병욱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학생들이 참석했다.

개관식 행사에서 기숙사 건립에 힘써온 윤석울 (㈜울림건설 대표이사)와 양철웅 (㈜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무소 대표이사)에게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감사패가 수여되었으며, 박현진·김현주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업팀 주임은 신한대학교 총장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또 조익상 (㈜울림건설 현장소장, 장광선 (㈜태원종합기술단건축사무소 감리단장, 박노현 전 신한대학교 관리운영처장, 박진호 전 신

한대학교 관리운영처 시설지원팀장)에겐 신한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 대표이사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김병욱 총장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집을 떠나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은 기숙사 공간 부족으로 민자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하숙과 자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숙사로 지원하여 완공을 보게 되었다.”고 밝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정책적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장은 “기숙사 신축은 학생들이 면학에 열중할 수 있는 학생복지의 한 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며 “입주한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민 기자〉





신한대학교, 4년 연속 경기북부
수시 지원률 1위!

1 10.33:1의 경쟁률, 최고 지원자 수 달성

신한대학교는 9월 15일 자정 수시모집 지원을 마감했다. 2018년 신한대학교 수시모집 전체 모집 지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 1,021명(특성화고졸재직자 제외)에 1만 543명이 지원하면서 10.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로써 신한대학교는 4년 연속 경기북부대학 수시 경쟁률 1위이자, 최고 입시 지원자수라는 쾌거를 달성해 '경기북부 명문 대학'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

전체학과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으로, 모집인원 24명에 1,076명이 지원해 44.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34.21대 1의 경쟁률보다도 훨씬 높은 경쟁률이다. 이어 간호학과가 68명 모집에 1,493명이 지원해 2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전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간호학과로 42명 모집에 1,200명이 지원해 28.5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19.18대 1의 경쟁률과 비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아교육과는 20명 모집에 365명이 지원하여 18.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치위생학과가 20명 모집에 330명이 지원해 16.5대 1의 경쟁률 기록했다.

학생부우수자 전형에서는 국제어학과가 2명 모집에 46명이 지원하여 2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치기공학과가 2명 38명이 지원해 19대 1, 섬유소재공학과가 2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해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별 경쟁률은 실기우수자 전형이 41명 모집에 1,300명이 지원해 31.71대 1, 신 한국인 전형이 30명 모집에 358명이 지원하여 11.9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어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는 64명 모집에 688명이 지원해 10.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한대학교가 수시모집에서 종합대학으로 개교한 2014년 경기북부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최고의 취업명문 대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고 융·복합 교육으로 새로운 대학 문화 창출에 주력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신한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와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이미지가 수험생들에게 각인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영성 입학처장은 “수시 모의면접고사와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입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높은 경쟁률에 반영됐다”고 밝히고 수험생들이 면접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처장은 “특히 이번 수시모집 지원자의 여학생 비율이 60%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여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대학교는 10월 28일~29일, 11월 4일~5일 면접고사와 10월 18~25일 실기고사를 거쳐 12월 15일 수시모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 홈페이지 <http://ipsi.shinhan.ac.kr/>

■ 문의전화 (031)870-3211~7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다

신한대학교가 개교된 2014년 이래로 학교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들의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신한대학교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적고 많은 돈이든 몇 년 동안의 꾸준한 기부로 신한대학교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근 몇 년간에 각 학과의 교수들과 학교관계자들을 포함해 그밖에 신한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외인사들과 동문, 그리고 학교가 위치한 의정부시와 경기 북부, 뿐만 아니라 근접한 위치에 있는 도봉구, 노원구 등에 자리 잡고 있는 병원이나 은행, 기업 그리고 장학회 등에서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기부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뜻 깊은 곳에 써주기를 부탁하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실천하기 때문에 그 금액 또한 다양하지만, 학교와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지켜보는 그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9월 8일,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의정부점에서는 신한대학교 제 1캠퍼스 본관 회의실에서 신한대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장학금을 기탁했다. 그린컴퓨터 아카데미의 전현수 원장 역시도 신한대학교와 학생들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런 자신의 행동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더불어 기부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되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린컴퓨터 아카데미의 전현수 원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해보았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전현수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그린컴퓨터아카데미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의정부점 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린컴퓨터 아카데미는 전국의 19개 지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고용노동부 위탁 기관으로서 크게 2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 그것을 이어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돕고 있으며 이직을 준비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동기로신한대학교에기부하게되었고,신한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의정부점 원장을 맡게 된 이후에 지역 내 가장 규모 있고 영향력 있는 학교를 찾아보다 신한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운영 목적이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훈련기관에서 훈련 받는 대다수가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입니다. 그중 대다수가 신한대학교 학생들이었고, 또 이분들의 대다수가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어서 그린컴퓨터 아카데미에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도 신한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했을 때의 바람이나 다짐 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신한대학교가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좋은 방향을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 다니기에 불편함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해 보다 순조로운 출발을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눔'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모든 이가 행복할 때, 그것이 비로소 나눔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나눔은 비로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나눔의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한 학원의 원장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학원 취지에 맞게 경기 북부 지역 내에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양질

의 교육은 물론, 학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는, 진정한 나눔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나눔의 목표와 이유를 몸소 실천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제가 맡고 있는 학원의 많은 학생들에게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들을 나누고,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전체의 발전을 돕기 위한 나눔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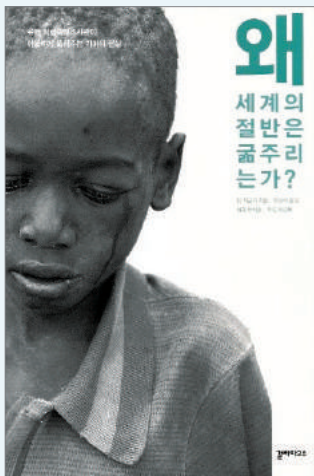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번 학기가 지나면 신한대학교가 4년제가 되어서 처음으로 졸업생이 배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졸업을 앞둔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저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신한대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기부는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의 나눔이 받는 이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기도 하고, 빛으로 인도해 주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는 이 또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제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으며, 저의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몸소 느낀 이후에는 많은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손길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느꼈으니 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기부라는 나눔을 통해 제가 겪은 모든 것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몸소 느꼈다는 전현수 원장의 말처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자
서평책이 뭐
그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작가 장 지글러작

8억 5,000만의 죽음과 굶주림을 위해

세계인구 약 75억,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 왜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곡물잠재량 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프랑스의 곡물 생산으로 유럽전체가 먹을 수도 있다. 우리가 쉽게 그리고 매일 하나 님께 감사드리며 먹는 식량이 모두에게 나눠질 수 있는데 왜 굶어 죽는 아이들의 무덤이 늘어 가는가. 앞선 문장들에 대한 답을 모른다

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유엔 산하기구에서 기아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목격한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기아의 끔찍한 실상을 자신의 아이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쉽게 쓴 글이다. 즉, 아빠와 아들의 대화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이 책이 아니었다면 미처 알지 못했을 점들에 대해 전하고 있다. 지글러가 어린이 무덤에 바치는 참회록이라 한다. 아버지에게 반문하는 아들의 질문은 읽는 이에 가슴에 바늘을 댄다. 지글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변화에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 책에는 기아문제에 대한 여러 이유가 서술돼 있다. 모든 것은 '많이 가진' 나라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보였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며 배운 대로 '공정한' 교역을 한다면 같은 땅위에 배부름과 굶주림으로 죽는 이들이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한 나라 전반에서 생산된 특정 원료가 싼 값에 권력자들에게 팔리고, 이 자들은 유럽의 국가들과 함께 자국민의 고통의 결실을 나눠 갖는 것이다. 굶주리는 자들은 성실히 일해도 생산물을 헐 값에 넘기고 대신 사야 할 곡식은 비싸게 사야 하는 구조가 되어있다고 한다.

“그들은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파블로 네루다는 말했다. 앞서 지글러가 다른 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인간의 모습이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꺾어버린 어린 꽃들을 위해 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

〈박은영 편집장〉



내 사랑 백석

작가 김영한

천억이 그 사람 詩한 줄만 못해

노년의 시간이 정말 한가롭고 무료하고 심심해서,

그 옛날 정다웠던 시인 백석 선생의 시전집이나 뒤져보는 것이

그 동안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니다.

한 평생 다시는 보지 못할 정인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가 있다.

당시 시가로 천억 원이 넘었던 요정 대원각을 불교에 시주한 '길상화' 김영한이다. 김영한이 죽을 때까지 그리워한 정인의 이야기를 다룬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내 사랑 백석'이다.

책은 추억을 위한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백석에 대한 그리움을 그려내며 시작한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의 시를 읽으며 어린 날의 불꽃같았던 추억을 되새긴다는 그 내용은 마치 백석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느껴진다.

집안의 영락으로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어야 했던 김영한은 조선 어학회 신운국의 후원으로 일본유학을 가기도 하지만 신운국이 독립운동으로 투옥되자 그를 위해 다시 권번에 들어간다. 이후 함흥관에서 만난 백석과 연인이 되고, 동거까지 하지만 백석의 부모는 김영한이 기생이라는 이유로 그를 반대한다. 일본유학까지 마

친 신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가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다.

기생출신이라는 이유로 김영한을 받아들이지 못한 백석의 부모는 백석을 억지로 다른 여성과 세 번이나 혼인시키지만 백석은 안정된 결혼생활을 뒤로 하고 김영한에게 돌아간다. 이로 인해 김영한은 자신이 백석의 앞길을 막는다 생각하여 만주로 함께 가자는 백석의 손을 잡지 않는다. 그렇게 백석은 만주로 떠나고, 김영한은 홀로 남게 되는데 광복 후 백석이 신의주로 내려온 사이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남북이 분단되면서 두 사람은 긴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사상의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남한에서 백석의 작품은 오랜 시간 동안 월북시인의 작품이라는 오명아래 금지되어 있었다. 북한에 남은 백석은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작품을 썼지만 문화계에 대한 반발로 1962년부터 그가 타계한 1996년까지는 붓을 쥐고 글을 쓰지 않았다.

남한에 남은 김영한은 대원각을 인수하여 서울 3대 요정 중 하나로 키워내며 큰돈을 벌게 되었으나 백석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백석의 생일인 음력 7월 1일에는 국기를 끊었다. 이후 그녀는 법정스님께 대원각을 시주하는데 당시 시가로 천억이 넘었던 대원각을 시주하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천억이 그 사람 시 한 줄 못하다.”고 답한다.

짧은 사랑 끝에 찾아온 긴 기다림을 다룬 이 책은 서정적인 묘사와 극적인 이야기로 마치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신분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남아있는 봉건적인 관습과 남북분단으로 인해 겪게 된 영원한 이별의 아픔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이 결국 잘못된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좌절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붓을 꺾은 30여 년 간 농사꾼으로 살아가는 백석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는 보지 못할 그의 옛 정인이 평생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송은 기자〉



21C **SHINHAN**
Super-Versity **서대**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교양인양성 **Super-Edu**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2년간의 폭풍성장! 벌써 4회째!
신한대학교 공연동아리 연합회의 정기공연

BASH



17년도 2학기, 개강이후 여유를 즐길 틈도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즐거운 위로를 전한 이들이 있다. 작년 이맘쯤, 신한대학교 공연동아리들이 모여 만든 공연동아리연합은 자신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BASH>의 첫 걸음을 떼었다. <BASH>는 신한대학교 공연동아리연합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공연으로, 지금까지 총 4번의 공연을 거쳤다. 지난해는 9월 8일과 10월 27일에 두 번의 <BASH> 공연을 했고 올해는 밴드동아리 '뱀'을 제외하고 3월 15일에 ASH로 무대에 올랐으며, 지난 9월 14일 <BASH>를 진행하며 2년 사이에 4번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공연의 타이틀인 <BASH>는 밴드동아리 'BOMB(뱀)', 힙합동아리 'AKDANG(악당)', 어쿠스틱동아리 '소리패', 댄스동아리 'HEUNG(흥)'으로 구성된 '신한대학교 공연동아리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세게 후려치다', '강타하다'라는 사전적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 공연은 신한대학교가 개교한 이래로 처음 자발적으로 이뤄진 '공연동아리 연합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학업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작사, 작곡, 편곡 등을 해냈을 뿐 아니라 꾸준한 연습으로 공연 내내 손색없는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전공 이 외에도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신한인의 모습을 교내와 교외에 톡톡히 알렸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도 서로의 무대에 대한 조언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BASH>가 처음 선보여지던 지난해부터 동아리연합회의 공연을 꾸준히 취재했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꾸준히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 동아리의 부장을 만나 인터뷰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BOMB

- 안경광학과 16학번 박소영

Q. 직접 준비한 퍼포먼스(곡, 공연, 춤 등)를 무대에 올리면서 느꼈던 점이 있나요?

▲ 밴드를 취미로 모인 사람들끼리 재밌게 만든 무대이지만 호응이 적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관객들이 함께 재밌게 놀아 주셔서 '넘나 즐거웠던 것'이었습니다!

Q. 뱀과 BASH를 각각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 뱀은 <범(犯)>이다 BASH는 <범의 놀이터>다.

AKDANG - 사회복지학과 14학번 김범중

Q. 정기공연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 (힙합공연을 준비하는)동아리 특성상 동아리 활동의 결과로써 정기공연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공연을 진행하면 같은 학교 친구들이 보러 와주는 등, 이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BASH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동아리끼리 콜라보 공연을 준비하면서 타 동아리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함께 연습한 시간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저희가 사용했던 도봉관 홀에 비가 새는 천장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웃음)

Q. 직접 준비한 퍼포먼스를 무대에 올리면서 느꼈던 점이 있나요?

▲ 공연에는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연설명이 없거나 관객들이 이해하기 난해한 곡들이 무대에 오르게 되면 관객들은 몰입이 어려워지거든요. 몰입과 지루함은 반비례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 공연이 되려면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Q. 공연동아리연합이나 악당의 활동 중 BASH나 ASH 외에 알고 싶은 다른 활동이 있나요?

▲ 취미로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활동들을 자신의 미래와 연관지어 길게 보고 달리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중인 곡들이 SNS등에 올라오면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일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SORIPAE - 공법행정학과 16학번 조주현

Q. 직접 준비한 퍼포먼스를 무대에 올리면서 느꼈던 점이 있나요?

▲ 크고 작은 공연을 많이 해왔지만 항상 정말 만족스러웠던 무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수 십번 노래를 부르고 합주를 해서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해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연습 때와는 다른 감정이 들어서 작은 실수를 하게 돼요. 저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늘 아쉬워했어요. 항상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껴요.

Q. 공연동아리연합이나 소리패의 활동 중 BASH와 ASH외에 알고 싶은 다른 활동이 있나요?

▲ 일단, 당연히 내년에도 BASH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저희 소리패가 1년에 두 번씩 하계, 동계공연으로 나누어 큰 공연을 하는데 정말 공연진 모두가 열심히 준비해요. 저희 소리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관객분들도 즐겁고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이니깐 즐겁게 걸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ENG - 언론학과 14학번 신혜린

Q. 공연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 동아리 합동공연은 다른 동아리와 시작하게 된 계기도 비슷하고 매년 해왔지만 이번 BASH를 하게 된 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동아리끼리의 콜라보 공연은 처음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뜻 깊은 공연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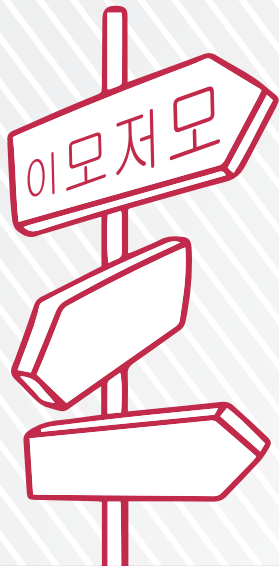
Q. 공연동아리연합이나 흥의 활동 중 BASH와 ASH 외에 알고 싶은 다른 활동이 있나요?

▲ 다른 동아리와의 콜라보공연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소리패와 흥, 악당과 흥, 뱀과 흥 이런식의 콜라보도 다른 장르의 퍼포먼스가 합해지면서 기존에 해오던 공연과 다른 색다른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단계 안에서 우리가 쌓는 경험의 모양은 모두가 다르다. 사회에 가지고 나갈 배움과 경험에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무대와 공연경험을 더해 가는 이들이 멋있게 느껴진다. 책상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신한대학교 공연분과 학생들에게 응원을 전하며 이들을 통해 느낀 바로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좋은 경험을 쌓는 한 학기를 보내기를 바란다.

<박은영 편집장>





인재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학생들에게 꿈을 심는다

신한대학교 인재개발센터와 학생상담센터가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 코칭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에 대한 동력을 스스로 가지며 사회로 들어가는 관문을 향해 마라톤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재개발센터의 학습 코칭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내적동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더 올림', 'I DO', '동계 학습클리닉', '하계 학습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를 확립하도록 돕고 있다.

학생상담센터의 '영화로 나의 강점 찾기' 프로그램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일탈과 성취의 경계를 스스로 설정하는 등 자기 이해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학생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아를 파악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와 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차수빈 수습기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생 YOLO족을 위한 카페 아이디어로 장려상 수상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학생들(김세종 외 3명)이 제2회 한국외식산업학회 캡스톤 디자인경진대회 조리·외식경영·관광분야 창업 아이디어 제안에서 'DIY(Do it yourself)'라는 창업 아이디어로 장려상과 장학금을 수상했다. 이들은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옴로(YOLO)족을 위한 창업아이디어로 주목을 끌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YOLO문화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인 YOLO는 '한 번 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자'는 뜻. YOLO문화는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YOLO족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다소 비싸더라도 아낌없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팀은 자신만의 음료와 빙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YOLO족이 선호하는 DIY(Do it yourself)카페를 만들고자 하였다. DIY 카페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소 비싸더라도 소비를 하는 YOLO족에게 최대한 만족감을 제공하고, 이것이 고객만족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YOLO족이 이 시대의 트렌드로 확대될 경우 DIY 카페의 프랜차이즈화로 인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치현 수습기자〉

교수는 대상 받고 제자들은 경진대회 휩쓸었다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사제 간에 경사가 겹쳤다. 교수는 학술대상을 받고 학생들은 전국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 이태정 교수는 대한치과기공사 협회 주관 국제학술대회 KDTEX(Korea Dental Technology Expo & Scientific conference)에서 치기공학 발전 연구 활동으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KDTEX 학생보철작품 경진대회에서 치기공학과 조광현 학생이 개인부문 최우수상, 단체 부문에선 이빛나 학생 외 19명이 출품한 작품이 선정되었고 학생실기경진대회 4개 부문 중 왁스업 구치부 치아형태에서는 권현정 학생이 인공치아 배열 및 치은형성부문에서는 홍예슬 학생이 각각 2등을 수상하여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차수빈 수습기자〉



'아동, 청소년 비만과의 전쟁' 신한대가 나섰다

신한대학교가 '경기북부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동·청소년 비만과의 전쟁에 나섰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개발하는데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전공 서수연 교수가 참여하여 아동균형생활시간조사를 통한 아동 건강권 보장활동 사업을 기획·진행한다. 서교수는 "건강증진 사업이 단순히 아동의 신체발달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건강권 확보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네트워크와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차수빈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입학전형료 대폭 인하, 착한 전형료 동참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욱)가 입학 전형료를 대폭 인하했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2018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전체 전형료 평균 23.3%를 인하하였다. 이 중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 가장 크게 인하하였으며,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전형은 기존 60,000원에서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7%를 대폭 인하하였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입학 전형료 인하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수시 접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 전형료 인하 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며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치기공학과 신종우 교수 (미래융합교육학회 초대회장) 인터뷰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신종우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교육을 필두로 한 미래융합 교육학회의 초대회장이 되었다.

플립러닝(flipped-learning)수업의 원조 교수라고 불리는 신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혁명이 가능하려면 교수부터 스스로 혁신해야한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개방하고 소통형 수업이 필요하다.”며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해결하려면 교수자의 강의가 개방돼야 하며 미래융합교육학회는 강의실 개방을 주축으로 끌고 가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교수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차수빈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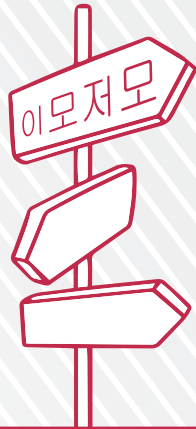
신한대학교 자동차공학트랙 자작자동차 C.B.A,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베스트루키상 수상

신한대학교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자동차공학트랙 학생들로 구성된 자작차 동아리 C.B.A팀(팀장 김민섭)가 지난 10~12일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공학회 주관 ‘2017 KSAE 대학생자작자동차 대회’에서 오프로드 경기인 baja부문 베스트 루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2개 대학의 187개의 팀(총 2,800여명)이 참가했으며, Baja부분과 온로드 경기인 포뮬러(Formula), 전기차 가속과 슬라럼 경기를 진행하는 EV로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 열렸다.

자동차공학트랙 3학년 박병주 학생은 이번 수상에 대해 “자작차전공동아리는 현재 40여명의 1~4학년 학생이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 있으며, 자동차를 기획, 설계, 제작, 성능평가까지 수십 번의 도전과 실패하는 과정을 겪으며 소중한 경험을 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민지 기자〉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Red Dor Design Award 수상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r Design Award)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인 공모전의 하나이다.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4학년 오정선과 윤병찬(현재 홍콩에 있는 cmonde 인터 참가 중)군은 박현철 교수(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의 지도하에 “Sightless Dog Antenna (백내장 견들을 위한 의료 보조기구)” 작품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1차, 2차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winner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18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가하였다.

2017년 레드닷 디자인 컨셉 어워드에는 58개국의 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연구 기관 및 디자이너들이 세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 4,724건이 접수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20여 명의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들이 개별 아이디어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수상작들을 선정하게 된다.

〈박은영 편집장〉



신한대학교, 아일랜드서 탈분단 국제학술회의 개최

신한대학교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9월 18일, 19일 이틀 간 북 아일랜드 벨파스트의 얼스터박물관에서 ‘평화프로세스와 경계의 역동성 : 아일랜드와 한반도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경계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신한대학교는 캠퍼스가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국내 대학 최초로 2015년 부속연구기관인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을 설립한 후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로 한반도에 유례없는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평화 프로세스, 협치, 권력공유의 경험을 전지구적 관점에서 비교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세계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북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어 고질적인 분쟁의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평화공존의 길이야말로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며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아일랜드, 중국, 대만, 한반도 등 여러 사례를 분석하여 경계가 평화공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접경지대에 위치한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역할을 새롭게 구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인재개발센터, 신한국인(信韓國人) 여학생 리더 양성프로그램 개최

인재개발처 인재개발센터(원장 변도윤 전 여성부장관)는 8월 29, 30일 이틀간 제3회신한대학교 여대생 인재개발 아카데미 SWL(Shinhan Women Leaders)를 개최했다. 행사는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대학교 인재상 중 '소통과 공감', '사랑과 봉사', '지성과 창의'와 관련된 여성 전문가를 초청해 여학생 리더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탐색했다.

여대생 인재개발 아카데미는 각 학과의 여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성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학생의 만남을 통해 학습동기를 높이고 학습목표와 비전을 달성하는 동시에 '신한국인(信韓國人)'적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소영 기자〉

신한대학교 학생대표단 바이칼유스포럼 최우수상 수상

신한대학교 학생대표단(글로벌통상경영학과 최승욱 학생 외 8명)이 러시아 부랴트자치공화국에서 열린 2017년 바이칼유스포럼(Baikal Youth Forum)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 부랴트국립대학교(Buryat State University-BSU)에서 열린 포럼에 참가한 이들은 국가별 특성 및 문화를 소개하는 세션의 프레젠테이션 및 동영상 발표 부분에서 한국의 특성과 문화를 소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신한대 학생대표단을 인솔한 국제어학센터 전현주 센터장은 "포럼 참가가 학생들의 글로벌 의식을 높이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신한대학교가 추구하는 교류협력의 북방전략에 따라 부랴트국립대학교의 학생·교수진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한 것은 큰 성과"라고 밝혔다.

〈최수민 기자〉



유럽 곳곳의 명소들로 가득 차 있는 카페거리로 재탄생

신한대학교 동두천 캠퍼스가 벽화작업으로 재탄생한다. 홍보팀이 캠퍼스 환경개선을 위해 단조로운 벽면에 벽화를 그려 쾌적한 캠퍼스 명소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신한대학교 동두천캠퍼스의 사론관과 브니엘관을 잇는 터널 내부 벽면에 벽화를 그려 넣어 현재 시멘트벽과 흙먼지, 누수 발생으로 오염되어 활용도가 현저히 적은 공간을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이다. 벽화작업에는 학생, 지역 다문화 센터, 군부대의 협조와 교직원 자원봉사로 참여해 신한대의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벽화작업은 제 1벽과 2벽으로 나눠 각각 유럽 거리의 풍경과 카페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을 표현해 터널에 들어서면 마치 유럽의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도록 표현하고 있다. 어두웠던 터널을 사진촬영 명소로, 차를 마시며 독서까지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 북카페 장소로 활용 가능하도록 현재 작업중에 있다. 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주고,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명소들의 특색에 맞게 창작, 벽화 있는 학교를 만듦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김치현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한국국제협력단(KOICA) 파키스탄 고급과정 연수 실시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욱)는 지난 8월 2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 산업용섬유센터 건립사업의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인 파키스탄 관리자 및 실무자 고급과정 초청연수 과정의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한대학교는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초청된 국립섬유대학 관리자 및 실무진 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2주간에 걸쳐 산업용섬유분야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수교육은 산업용섬유분야의 기자재 운용 및 기타 고장처리 교육을 위주로 본교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신한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초청연수의 현장실습을 통해 한국의 산업용 섬유기술을 전수하여 파키스탄 국립섬유대학의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및 장비 활용을 통한 산업용 섬유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송은 기자〉



2017. 11 / 192호

편집후기

박은영 편집장

2학기가 되었다. 앞으로 편집장으로써 남은 임기가 한학기가 채 되지 않는다. 이번학기를 더 힘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한변정도 남은 특특 발행에 욕심이 생긴다.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만큼 부족함 없이 하고자 한다. 새로 함께하게 된 김치현, 차수빈 수습기자와 함께 할 날들이 기대된다.

김민지 기자

날씨가 더워질 때쯤 190호를 냈던 것 같은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호로 내가 참여한 지 벌써 다섯 번째 신한특독인데 아직도 발행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고 부족한 것 같다. 기자들 모두 바쁘지만 힘내서 열심히 한만큼 이번호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김수정 기자

2학기가 되고 처음 발간하게 되는 192호이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다. 다음 호를 발간할 때엔 지금의 모습을 고쳐나가 좀 더 나은 모습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바는 스스로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 다음 193호 신한특독에선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겠다.

오소영 기자

올해 추석 연휴가 유독 길었다. 긴 연휴 앞뒤로 기사 쓰고 마감하느라 고생했을 기자들에게 편집후기를 빌어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저번 호보다 발전하고 싶었지만 이번 호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 아쉬웠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승은 기자

수습기자가 아닌 정기자로서 참여한 192호 발간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책이야기 파트를 맡아 칼럼을 쓰면서 내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것은 어렵고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193호 발간 때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싶다.

박현규 기자

가을은 결실의 계절. 자신의 글이 '결실'이라 표현하기에 어울리는 것 인지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어쩌면 글 쓰는 사람의 지병 같은 것일 터이다. 이번 호를 기점으로 떠난 기자도, 새로이 들어온 기자도 있다. 그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최수민 기자

192호에 실릴 기사를 작성하다보니 벌써 가을이 되었음을 느꼈다. 아직 한 학기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것같이 느껴진다. 남은 학기들도 느슨해지지 않고 신한특독을 이어갈 수 있기를 스스로 다짐해본다.

김치현 수습기자

수습기자가 되어서 192호 발간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기사를 써보는 터라 많이 부족했지만 이곳에서 정말로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다. 다음 193호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차수빈 수습기자

192호를 작성하며 아직은 부족하고 아쉽지만 193호 194호를 작성할 때는 지금보다 발전한 멋진 기자가 될 것이라 다짐을 해본다.





더 센! 창조와 융합교육 | 글로벌 현장교육 | 신한(信韓)류 미래교육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창학이념으로 출발한 신한대학교!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센세이셔널한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펼쳐 나갑니다!

■수시모집: 2017. 9. 11(월) ~ 9. 15(금) ■정시모집(가,나,다군): 2018. 1. 6(토) ~ 2018. 1. 9(화) ■입학안내: 031)870-3211~7